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사람은 ‘생각’이나 ‘마음’이 너무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2. 사람은 ‘자기가 듣고, 믿고, 확신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믿지 않게 되고, 불신까지 하게 된다.
3. 지난날 눈까지 빼어 줄 정도로 삼위와 주를 좋아하며 행했어도, 어느 날에 가서는 아예 잊고, 전혀 생각을 안 하기도 한다. 어떤 자는 신앙이 죽은 채로 살고, 어떤 자는 전혀 딴생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역사해 주시고, 죽음과 각종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살게 되었는데도, 현실에서 보고 듣는 것을 뇌와 마음에 느끼며 ‘딴생각’과 ‘딴마음’으로 생활하고 살기 때문이다.

4. 인생들은 너무 변화무쌍하여 ‘자기 실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삼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와 일체 되어 사는 주’를 보내시어 그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그와 일체 되어 살게 하신다.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는 휴거도 이루게 하신다.
5. 주도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해 주신 것들’을 현실에서 절대 잊지 않고 살기에, 변함없이 굳건하다.

6.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를 통해 행하신 각종 표적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희망했던 것도 다 받고 누렸어도 변화무쌍하게 변해버린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7. 잊으면, 사망권으로 죽는다.
8. 사람이 간사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배우고 깨달아야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자기에 행하신 일’과 ‘섭리사의 모두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다. 그로 인해 날마다 신앙의 차원을 높여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게 되고, 날마다 ‘축복’을 받게 된다.
9. 사람은 <뇌신경>으로 느끼고, 깨닫는다. 그로 인해 ‘마음’도 ‘생각’도 좌우된다.
10. 만일 <뇌신경덩이>가 다쳐서 기능을 못 하면, ‘마음’도 ‘생각’도 다 사라지고, 식물인간이 된다.
11. <뇌신경의 전개체>가 ‘사람의 몸’이다. ‘몸의 각 지체’다.
12. 어떤 물체를 손에 대면, 그 물체를 차갑게, 뜨겁게 혹은 부드럽게 느낀다. 그러다 손을 떼면 못 느낀다. 그리고 다른 것에 손을 대면 먼저 손댄 물체를 잊고, 그때 보고 듣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행하게 된다.

13. <뇌>는 ‘눈’ 과 같아서 볼 때만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다 안 보면 보던 것을 잊고, 현재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14. <생각>도 <마음>도 ‘눈’ 과 같아서 그때 생각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에만 몸이 따라간다.
15.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행함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현실의 것을 보고, 듣고, 몸으로 접해도, 누가 유혹해도, ‘마음’ 도 ‘생각’ 도 흔들리지 않고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차원을 높여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16.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행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으면, 그 마음도 생각도 ‘현실에서 보고, 듣는 것’ 을 중심하며 그것에 따라 무기력하게 살게 된다.
17.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사랑으로 행한 것들을 정말로 잊지 않고, 매일 생각하고 사는 자>는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잡고 사는 자’ 와 같아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무쌍하게 변하지 않는다.
18. 주가 ‘반석 같은 믿음’ 으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흑암에 묻히지 않고 가는 이유는 ‘지난 43년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절대적으로 돕고 행해 주신 것’ 을 잊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하다.

19. 현실의 자기 삶 속에서만 살다 보니, 지난날의 것들을 잊게 된다. 잊으면, 현실의 육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사니 육으로 기울게 된다.
20. 자기가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해 주신 것들’을 잊고 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지난날 자기가 수고하여 행한 것들’을 잊고 대해 주신다.
21. 지금 지난날같이 주를 직접 보고 대하지 못하고, 주가 지난날같이 행하며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지난날에 삼위와 주가 사랑으로 대하며 역사해 주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것들을 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차원 높여 희망으로 살게 된다.
22. 주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변하지 않고 반석같이 굳건하게 산다.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것을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기에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산다.
23.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역사해 주신 것’과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잊으니, 현실에 자기 앞에 보이고 들리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신앙을 잃고 무미하게 살아가게 된다.

24.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말씀을 주시며 흑암의 사망권에 살던 자들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형제급 주관권에서 살던 자들을 섭리역사로 불러서 신부급으로 살게 해 주시고, 천 년 혼인 잔치 세계로 이끌어 주시며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게 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기뻐하며 행해야, 지금도 신앙의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하여 ‘첫사랑의 신앙’을 하게 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각자에게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며 행해 주셨다. 지난날같이 엄청난 기적들을 또다시 일으켜 주기는 어렵다. 지난날 받은 각종 것들을 잊지 말고 관리도 잘하고, 기뻐하며 써야 된다. 그래야, ‘현실에서 주실 것’을 또 주신다.
26.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사랑하며 행해 주신 것’과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잊으면, 죽는다.
27. 지난날의 것들을 생각에서 잊으면, 현실에서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주와도 남남이 된다.
28. 지난날을 잊고 살다 보면 또 자기 현실에 처해서 사니, 자기를 중심하며 살다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시험에 들어 살게 되고, 결국 환난과 고통을 못 이기고 신앙이 파선되어 섭리사를 나가게 된다.
29.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현실의 어려운 일도 이기고,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깨닫고 행해야, 변화무쌍하게 변하지 않고 반석같이 굳건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며, 신부로서 매일 차원을 높이고 사랑에 불타서 살아가게 된다.

30. 하나님이 반석이다. 주가 반석이다. <믿음>과 <신앙>을 오직 ‘하나님과 주라는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래야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